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기업 간담회 개최

NCC 설비감축 대응 및 다운스트림 기업 지원·산단 기반시설 개선 논의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20일 금호 석유화학 여수1공장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사업재편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특별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수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업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여천 NCC·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폴리미래·한국바스프·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의 ‘사

업재편 여수 1호’ 승인에 따른 NCC 설비 감축 영향과 대응 방안, 하부 공정(다운스트림) 기업 및 협력업체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NCC 생산능력이 기존 352만 톤에서 213만 톤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에틸렌·프로필렌·BTX 등 기초유분 공급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하부공정(다운스트림) 기업의 원료 수급 불안과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은 통합특별시 경제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라며 “NCC 설비 감축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과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필요한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재편을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의 산

업구조 전환과 여수산단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업재편에 따른 경영 부담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 함께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 협력업체 지원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특히 하부공정(다운스트림)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설비 신·증설 국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R&D, 고용 안정, 민생·금융지원 등 19개 사업(3,707억 원 규모)을 추진하고,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등 산단 체질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유빈 기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여수산단 기업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 민선 9기 슬로건 최종 투표... 시민의 손으로 완성

순천시(시장 손훈모)가 민선 9기 시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대표 슬로건을 시민의 손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민선 9기 순천시 대표 슬로건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시민투표는 지난 7월 진행한 ‘순천시 민선 9기 시정의 패러다임 대전환, 시민주권 시대 슬로건 공모전’의 마지막 절차로, 공모 결과 총 1,400건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건으로 압축됐다. 최종 시민투표에 오른 슬로건은 「함께 여는, 더 큰 순천」, 「하나 된 더 큰 순천, 미래로!」이며, 시는 최종 후보 2건을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건을 순천시 슬로건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민선 9기 시정 운영과 주요 정책을 알리는 대표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운영체계 종합 점검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금 집행과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교부 목적과 조건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운송원가와 운행실적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인건비·차량정비비 등 주요 항목의 집행내역, 차량 정비이력, 배차계획과 실제 운행기록,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안전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절차와 개선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지원금 산정기준과 정산절차, 운송서비스 평가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또한,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제도의 운영성과와 재정 지속가능성도 별도로 분석한다. 광양시는 2023년 11월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2024년 약 22억원, 2025년 약 3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약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순천시는 2025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5회 무료 이용을 지원한 뒤 2026년부터 월 20회로 확대했으며, 여수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회까지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연령과 이용 횟수 등 운영 기준에 차이가 있다.

곡성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공시제 부문’우수상 받아

곡성군이 지난 19일 서울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및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발하는 정부 대표 일자리 상이다.

곡성군은 ▲곡성형 스마트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미래 청년농 육성지원 ▲모둘러 주택 및 공유오피스 기반 위케이션 운영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자원 연계 곡성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자리·인구정책·지

/이일규 기자

구례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 올해 이용객 6,000명 돌파

방소멸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여 산재된 일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청년정착, 미래농업 기반 구축,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곡성군이 청년과 군민 모두가 새로운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시원한 휴식과 생태체험을 제공한 ‘2026년도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물놀이장 이용객은 총 6,046명으로 전년(5,230명)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관외 방문객 비율이 86%에 달해,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이 외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구례의 대표 여름철 가족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단순한 물놀이에 그치지 않고 미꾸라지 잡기와 생태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물놀이와 수달 관람, 생태체험을 한곳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한곳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분석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안전요원 2명

을 상시 배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그늘막·피크닉 테이블 운영과 샤워장 신설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올해는 안전요원 상시 배치와 샤워장 신설, 휴게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특히 물놀이와 수달 관람을 동시에 즐기는 수달생태공원만의 차별성이 관광객 증가를 이끈 만큼, 앞으로도 계절 내내 가족이 찾는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방문객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인다.

/심선섭 기자

